

#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

—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허윤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1 ‘노동하는 시민’이라는 형상
- 2 일할 수 없는 몸을 생산하는 사회
- 3 비장애중심주의(ablism)와 역진화의 시간
- 4 비인간의 인식론과 성차의 탈자연화
- 5 ‘일할 수 없는 몸’의 경계를 넘어서기

로봇이나 인조인간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노동은 시민의 의무임과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하는 주요 통로였으며,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노동자는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일할 수 없는 몸’으로 명명된 장애인-퀴어-여성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자로 나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장애중심주의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트랜스휴머니즘 논의에서 보듯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장애에 대한 판정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김보영의 소설은 이러한 비장애중심주의를 전유하여 능력주의를 규범으로 삼은 사회를 재현한다. 그는 장애-비장애, 여성-남성, 퀴어-이성애자 등의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고, 한국 사회가 상정한 진보의 선형적 시간관을 비틀어낸다. 로봇은 인간을 만들어내고, AI는 이러한 역진화의 상상력은 ‘일할 수 없는 몸’으로 배제된 존재들을 규정하는 통치성을 패러디한다. 근대성을 넘어선 곳에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이 있다면, 김보영이 재현하는 포스트휴먼은 인간성을 탈신화화하는 움직임이 되는 것이다.

국문핵심어: 장애, 비장애중심주의, 포스트휴먼, 김보영, SF 소설

대니 저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표정도 그랬고, 몸을 움직이는 모습도요. 쉬지 않았어요. 저처럼요. 아기를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AB들이 어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올드타운에는 저 혼자라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윤이형, 「대니」, 『러브레플리카』, 문학동네, 2016, 42쪽.

## 1 ‘노동하는 시민’이라는 형상

윤이형의 소설 「대니」에서 육아용 로봇 대니는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를 보고 자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쉬지 않고 일하는 그의 모습에, 자신과 같은 종(種)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할머니 역시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육아를 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로봇 대니는 할머니의 피로나 고통 등을 읽어낸다. 손녀를 돌보는 재생산 노동에 시달리던 할머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것은 대니뿐이었다. 대니는 불평 없이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를 돕는다. 소설은 대니가 할머니를 위해 사건을 저지르고, 할머니가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대니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로봇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기될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할머니를 가혹한 노동에 방치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로봇은 1920년대 조선에 인조인간, 인조노동자로 소개되었다. “면화로 불리내면 령리하게 대답할뿐아니라 시키는 일을 담박에 하기사작하나니 사람처럼 반항을 한다든지 게으름을 부리고 괴롭다고 쉬는 일이 업스며 언제든지 정확하고 충실하게 끈임업는 노력을 하는 터이며 또 라디오를 응용하면 천리나 이천리박게서라도 ○○○서 명령을 내릴수 잇고 뜻대로 사용할 수 잇는 편리하기 짝이업는”<sup>1</sup> “인조인간은 밥도 먹지 안을 뿐 아니라 술도 담배도 물도 안먹으며 주야의 구별도 업시 불면불휴로 혹사하여도 조금도 불평을 말하는 법이 없”<sup>2</sup>다. 괴로움 없이 늘 웃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대니 삼촌처럼, 로봇(인조인간)은 반항을 하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쉬지 않는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로봇의 등장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로봇’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차페크(Karel Capek)의 희곡 「로봇(Rossum's Universal Robots)」은 1925년 박영희의 번역으로 『개벽』에 전문이 실린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일부가 번역된 상태였다. ‘강제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robota)에서 온 로봇은 자본주의와 SF가 만나 인간성을 실험한 장이

- 
- 1 「(통속강화)인조인간(1), 잠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서 일을 하는 꼭 사람같은 기계」, 『중외일보』, 1928.3.6.;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 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424쪽 재인용.
  - 2 「(통속강화)인조인간(3)」, 『중외일보』 1928.3.9.;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 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424쪽 재인용.

되었다.<sup>3</sup> “인간의 고로를 업시하기위하여 로봇이라는 인조인간을제조하여 그로 말미아마 인류가 멸망하기에 이르는”<sup>4</sup> 이 작품에서 인조인간 로봇은 노동자 계급을 표상한다. 노동하는 자와 노동하지 않는 자로 대별되는 세계에서 로봇은 구원자인 헤레나의 도움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지배 계급이었던 인류는 로봇의 적으로 명명되고, 로봇에 의해 살해당한다.<sup>5</sup> 1920년대 조선에 도착한 SF는 무산 계급 노동자의 문제와 연결되어 혁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계급 혁명을 통해 노동자 해방을 완수하는 것이다.

평등한 인간이라는 근대적 세계관을 완성하는 데 노동이 핵심에 놓인 것은, 일할 수 있는 몸이 시민권의 토대로 여겨지게 된 근대사회의 형성과 연결된다. 초기 시민권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다. 재산이 있어야만 투표를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시민들의 집합이 확장되면서 재산은 없지만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노동자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졌다. 즉 노동은 재산만큼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 셈이다. 이에 재산의 안정성에 버금가는 안정성을 근로소득에 부여하기 위해 단체보험, 사회보험이 생겨났고, 빈민구호는 고용 안정 및 사회보험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수당의 권리로 재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 수익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시민으로, 일하지 않는/못하는 자는 비시민으로 부상된다. ‘기꺼이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시민의 최고 의무가 된 것이다.<sup>6</sup> 그러나 실업률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희소해지기 시작하는 1980년대 이후 시민권에 수반되는 사회권의 이행은 비판에 부딪혔다. 노동권은 점차 좁아지고, 노동하지 않는 자는 사회의 부조 대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00년대 소설에서 일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가 시민과 시민권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

본고는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김보영의 소설을 통해 2000년대 한국 사회

3 마크 오코널, 노승영 역, 『트랜스휴머니즘』, 문학동네, 2018, 151-155쪽.

4 마해송, 「마음의 극장 버레의 생활 1」, 『조선일보』 1927.9.17.

5 여덟피, 「카렐 차פק크의 인조노동자: 문명의 몰락과 인류의 재생」, 『동아일보』 1925.2.9.

6 헤르만 R. 판 힌스테런, 장진범 역, 『시민권의 이론』, 그린비, 2020, 187-199쪽.

가 시민을 상상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유전자 개량, AI, 사이보그 등 SF 장르의 공식을 충실하게 활용하는 김보영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SF 장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한 작가다. 하지만 SF 소설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최근에서야 활발해진 탓에 평론이나 연구사 등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미영은 김보영과 배명훈을 SF를 보편 소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작가로 지목하면서, 낯센과 인식이라는 SF의 시학에 충실한 작가로서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갱신한다고 지적한다.<sup>7</sup> 이러한 지적은 SF 소설과 ‘보편 소설’ 사이의 경계가 아직은 완고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여전히 SF 소설은 문학연구 장바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김보영의 소설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다. 이양숙은 김보영 소설이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이 접속하여 소통하는 세계를 고찰하였다고 밝혔다.<sup>8</sup>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모색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이 선보이는 인간관과 시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sup>9</sup> 특히 페미니스트 SF에서 포스트휴먼적 상상은 남성중심적 세계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어 다각도로 이어진다. 강은교와 김은주는 “페미니즘과 SF의 조우를 페미니즘 대중화의 일환으로만 분석하는 것도, SF의 장르적인 특성으로만 분석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sup>10</sup>고 지적하면서 김보영 소설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고는 이처럼 다각화되고 있는 김보영 소설 연구 장에 ‘노동하는 몸’이라는 축을 더하고자 한다. 김보영은 소설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상성을 전유하여 재질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성애자-비장애인-남성 중심의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7 우미영, 「한국 현대소설의 ‘과학’과 철학적, 소설적 질문」, 『외국문학연구』 제5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21-142쪽.

8 이양숙, 「한국소설의 비인간 전환과 탈인간중심주의」, 『한국문학과 예술』 제34호,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227-259쪽.

9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비평문학』 제6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0-133쪽;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05-139쪽.

10 강은교·김은주, 「한국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두나의 「두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쪽.

반성으로부터 도래한 SF는 출발에서부터 소수자 정치와 조우할 수밖에 없다. 김보영은 인간과 비인간, 장애와 비장애, 여성과 남성 등 이원화된 세계의 규칙을 전유함으로써 근대성이 규율한 ‘일하는 몸’ 이후의 세계를 탐구한다. “당신이 사이보그이며, 사이보그가 곧 당신이다.”<sup>11</sup>는 선언처럼 인간성과 정상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김보영의 소설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2 ‘일할 수 없는 몸’을 생산하는 사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물질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트랜스휴머니즘은 SF의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우수한 유전자로의 개량은 인간의 신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생명 권력은 인구 통제를 통해서 일련의 정치 경제적 문제를 통제/통치한다. 사망 대 출생의 비율, 출산율, 인구증가율과 같은 수치는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 통치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이나 인구증가율은 즉각적으로 생산인구와 연결된다.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은 생산가능한 인구를 정상화(normalizing)하고, 이는 곧 권력 기술 체계의 역사적 결과가 된다. 주체들 스스로 정상성을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아주 쉽게 우생학적 사유를 정당화한다. 국가의 통치행위는 어떤 인간 집단을 장애화하고, 인정화하고, 젠더화하면서 불평등 효과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계층화와 연결된다.<sup>12</sup> 건강하고 우수한 인간을 재생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실상은 권장되는 것이기도 한 셈이다. 19세기 초 제정된 미국 독립전쟁 연금법은 법적, 사회적 복지의 범주에서 장애를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 실명, 다리 절단, 마차 사고로 인한 손 부상 등의 손상으로는 장애인으로 정의되지 않았다.<sup>13</sup> 즉 일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장애

11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나』, 열린책들, 2013, 14쪽.

12 셸리 트레마인, 박정수 역, 「푸코, 통치성, 그리고 비판적 장애 이론」, 『푸코와 장애의 통치』, 그린비, 2020, 21-37쪽.

13 김 닐슨, 김승섭 역, 『장애의 역사』, 동아시아, 2020, 114-123쪽.

여부가 결정되고, 어떤 상태가 일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기준 역시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보면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장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이 시민권을 배태하는 토대로 사용된다면, ‘일할 수 없는 몸’의 증가는 시민권의 축소와도 연결된다.

「우수한 유전자」(2006)는 유전자 판별기를 이용해서 질병 없이 장수하는 신체를 획득한 ‘스카이돔’과 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산하고 원시적 방식으로 치료하는 ‘키바’로 이원화된 세계를 그린다. 우수한 유전자만이 출생하는 스카이돔은 평균 수명이 200살인 트랜스휴먼들의 공간이지만, 자연출산을 계속하는 키바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낙후된 지역이다. 게다가 6천만 키바 사람들의 생산물은 세금의 형태로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스카이돔으로 보내진다.<sup>14</sup> 제국과 식민지를 본뜬 이 관계는 힘든 노동을 하지 않는 자와 하는 자로 계급화된다. 스카이돔의 이상주의자인 초점화자 지훈은 무지하고 뒤떨어진 키바를 돕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서 1년에 한 명에게만 판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다. 키바에 우수한 유전자가 보편화될 경우,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스카이돔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유전자의 개량이 인류의 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우수한 유전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 사회 전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훈의 예상과 달리, 키바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거부한다. 유전자 판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시혜는 저조한 희망자로 인해 좌초될 위험에 처한다.

길 양쪽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밭 사이사이마다 성냥갑처럼 납작한 집들이 딱딱따닥 붙어 있었다. 지붕은 밀짚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반쯤 벌거벗은 아이들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

14 “초창기에는 무역상이라도 들락거렸지만, 키바에 ‘굳이 무엇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는 불공정하고 합법적인 조세(또는 강탈)만이 남게 되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세금은 과도해지기도 했고 완화되기도 했지만, 키바는 아무 불평 없이 할당량을 채웠다.” 김보영, 「우수한 유전자」, 『멀리 가는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10, 167쪽.

도랑을 맨발로 뛰어다녔다.<sup>15</sup>

여자는 다행히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스카이돔의 조각 같은 여자들만 보며 살아온 지훈의 눈에는 끔찍하게 못생겨 보였다. 여자의 눈은 너무 작았고, 입술은 너무 두꺼웠고, 코는 너무 컸고, 이마는 너무 넓었고, 몸은 너무 뚱뚱했고, 키는 너무나 작았다.<sup>16</sup>

죽음과 질병을 거부하는 스카이돔에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다. 이로 인해 평범한 키바 사람들은 지훈의 눈에 추한 사람들로 비친다. 지훈의 예상처럼, 키바는 질병과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손녀딸이 있는 촌장에게, 지훈은 유전자 판별기를 이용하면 장애가 없이 태어날 수 있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건강과 아름다움을 능력이자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규범이 없는 키바에서는 장애가 비정상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촌장을 만나 유전자 판별기를 사용하라고 설득하려던 지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장애가 실제적인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일부 몸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해석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김보영은 촌장의 마지막 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우수한 유전자와 그렇지 못한 유전자 사이의 차이를 뒤집는다.

스카이돔의 사람들은 아직 육체에 과도하게 얽매어 있으므로 매일 엄청난 분량의 식사를 섭취해야 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므로 늘 같은 기온을 유지하는 건물이 필요하고, 질병에 취약하므로 모든 종류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 준 갑옷(비록 우리가 최대한 그들의 취향에 맞춰 주고는 있지만)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 돌볼 수 없어 우리 6천만 선민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하지 못하

---

15 위의 책, 165쪽.

16 위의 책, 170쪽.

면서도, 자신들이 불행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sup>17</sup>

존장은 아름다움이나 건강, 수명 등을 고민하는 스카이드이야말로 “육체에 과도하게 얽매어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깨끗한 곳이 아니면 살지 못하고,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고,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스카이드 사람들은 실상 ‘감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유를 통해 취약한 것은 키바가 아니라 키바의 생산물에 기대고 있는 스카이드가 된다. 이는 건강한 신체라는 우생학적 사고를 비트는 사유의 전환이다. 노대원은 김보영의 「우수한 유전자」를 ‘포스트휴먼 시대를 사유하는 사변 소설’로 정의한다. 취약성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도의 정신주의를 통해 트랜스휴머니즘의 맹점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8</sup> 그런데 키바의 정신주의는 오히려 몸에 기대고 있는 철저한 유물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존장은 노동과 육체의 역전을, 근대성과 빠른 성장,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물질을 생산하고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은 키바 사람들이다.

지훈이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은 근대국가가 시민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동원했던 것들이다.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설화하고, 이들을 일할 수 있는 신체로 재조직하는 과정은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몸으로의 변모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유전자 판별기가 인구를 개량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스카이드는 키바에 무제한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사회 계층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스카이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키바는 원시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상과 비정상을 끊임없이 구분 짓고 차이를 생산해야만 시민권을 지켜낸다는 욕망에 기인한다. 이 차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도 비정상의 경계 안에 있어야만 한다. 장애인의 노동 역시 통제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시설 밖으로 나와서 자립하는 경우,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

17 위의 책, 186-187쪽.

18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 151-174쪽.

즉 일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화되지만, 일할 수 있는 몸으로 사회로 나오면 다시금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19</sup>

김보영은 지훈을 통해서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허울을 지적한다. 지훈은 키바를 더 나은 사회로 재조직하기 위하여 유전자 판별기의 사용을 제안한다. 유전자 판별기는 우생학적 출산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미 모자보건법을 통해 제한적 임신중단만을 인정했던 한국 사회를 연상시킨다.<sup>20</sup> 지훈이 목격한 키바는 극빈자들, 노동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로 가득한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공간이다. 그러나 키바가 스카이돔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일할 수 있는 몸이다. 이는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몸이 특정 방식으로 보여야 하고 작동해야 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건축적, 태도적, 교육적, 직업적, 법적 관습에 그들의 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시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장애 형상은 산업화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노동의 의미를 유지할 수 없는 데서 생겨나는 불안을 투사하는 거울이 되었다. 자유로운 주체라는 믿음을 지지하기 위해, 극빈자들, 노동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책임을 지고 ‘게으른 자, 무능력한 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sup>21</sup> 이로 인해 키바의 ‘가난’은 게으름과 무능력의 표상이 되어야 했다.

김보영은 스카이돔과 키바의 전유를 통해, 키바를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의 공간으로 보는 스카이돔 사람들의 시선을 비판한다. 몸/물질에 종속된 것이 오히려 스카이돔이라는 촌장의 말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이 시

---

19 정다운, 「탈시설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현저히 낮은 근로 능력’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시설사회』, 와온, 2020, 221-227쪽.

20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전자 판별기의 기능을 한다. 산업화 시대 ‘공익’을 위해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불임수술이 벌어진 것은 한국사회가 장애 인구를 비정상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황지성, 「건강한 국가와 우생학적 신체들」, 『배틀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215-242쪽 참조.

21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84-91쪽.

민권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키바는 취약함을 바탕으로 타자와 연대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는 계층화된 사회 구조에 대한 전치다.

### 3 비장애중심주의(ablism)와 역진화의 시간

장애가 문학으로 형상화될 때, 장애는 결핍이나 훼손, 식민지 등의 표상으로 등장했다. 로즈매리 톰슨은 장애는 통제할 수 없는 자아를 상징하며, 평등이라는 생각에 내재된 동일성에 대한 환상을 반박하는 듯 다름을 과시한다고 지적한다. 규범에 잘 따르고, 의지에 순응하는 몸이 아니라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몸이라는 장애의 특징이 근대의 통치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sup>22</sup> 이로 인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장애를 ‘하지 못하는 것’이자 무능력한 것으로 상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person with disabilities’나 ‘disabled body’는 빈민, 장애인 등 노동할 수 없는 자를 통칭한다. 장애인이라는 범주는 노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자들을 명명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sup>23</sup>

김보영은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그 개념 자체에 질문을 던진다. ‘보는’ 세상에서는 ‘들리는’ 것이 일종의 초능력이 된다고 그린 「다섯 번째 감각」(2002)은 비장애중심주의를 폭로한다. 소설의 초점화자인 채연주는 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기 전까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언니 세연이 죽은 뒤 찾아온 경찰은 그가 사이비 종교집단의 일원이었으며, “죽기 전에 입을 움직여” 주문을 외웠다고 의심한다. 게다가 언니의 사고를 목격한 연주 역시도 소리를 내고/듣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한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의 언어를 모른다는 것을 깜박했군요. ‘청각’의 세계에 오신 것

---

22 위의 책, 75-80쪽.

23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그린비, 2020, 59-77쪽.

을 환영해요, 아가씨.”<sup>24</sup>

소설의 중반에 가서야, 독자들은 자신이 듣고 말하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김보영은 듣고 말하는 것을 초능력으로 명명하는 사회를 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성의 범위를 질문한다. 수화가 정상인 사회에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손을 본다. 손을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짐을 나르거나 일을 할 수 없다.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효율성, 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장애로 명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초능력으로 지칭된다. ‘할 수 있다’가 공포를 불러오는 것이다. 김보영은 초능력자가 사회의 비정상인으로 지목되는 SF의 클리셰를 가져와서 비장애의 비정상화로 그려낸다. 수화가 정상인 세계에서 청각은 사이비 종교가 되고, 단속당해야 할 위험한 능력이 된다. 감이 좋고, 인기척을 잘 느끼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말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위험한 자들로 체포될 위험에 처한다. 소리를 통해 비가 내릴 것도, 경찰이 문을 열고 들이닥칠 것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을 보고 예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 탓이다. 이 능력은 듣지 못하는 ‘보통의 시민’을 무섭게 한다. 김보영은 이 역전된 세계를 통해 정상성이 얼마나 허약하게 구조화된 개념인지를 보여준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이 비정상으로 명명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노동자,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자 능력과 능력 없음의 구분은 역전된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 짓고 차별화하는 사회의 의식구조다. 처음에는 “귀로, 무엇을 할 수 있지요?”(110쪽)라고 질문하던 연주는 점차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는 말하고 듣는 사람들과 함께 비정상의 공동체로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잠재된 능력, 노래하는 기쁨을 발굴한다.

비장애중심성에 대한 김보영의 문제의식은 정상성을 질병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2009)는 기면증을 앓고 있는 ‘나’를 통해서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한다. 잠이 없는 세계에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기절하는’ ‘나’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는다. 의식을 잃도록 내버려두는 것, 곧 잠을 자는 것은 아동학대로 여겨지기도 하고, 지능이 낮거

---

24 김보영, 「다섯 번째 감각」, 『멀리 가는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10, 107쪽.

나 정신분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기대수명이 낮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이 세계에서 잠/기절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정상화해야 하며, 잠은 ‘앞으로 좋아질 무엇’으로, 임시적인 것으로 통칭된다. 관과 같은 나무판자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나’를 부모들은 부끄러워하고, 이상하게 여긴다. 하지만 주인공 ‘나’는 치료를 받아서 나아지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내 건강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단다. 나를 확률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다. 부작용이나 위험 때문만도 아니다. 내 상태는 나의 일부다. 바꿀 마음이 들지 않는구나.<sup>25</sup>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질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낮는 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 입장에서는 나를 버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26</sup>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질병으로 환원하고 이를 치료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난치의 질병이 곧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질병은 나아지거나 좋아져야 하는 것으로 상상되지 않는다. 김보영은 비장애중심주의를 구성하는 능력주의 대신 주체성을 주장함으로써 ‘건강하게 노동하는 신체’라는 통치성을 거부한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다섯 번째 감각」)든가 “지구에는 별이 빛난다”(「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는 진술은 김보영 소설이 지금-여기가 아닌 시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고 쉴 필요도 없는 세계가 왔지만, 인간의 구별짓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김보영이 상상하는 미래 사회는 정상성이 비정상화되는 ‘이상한’ 사회기 때문이다. 이 우생학적 진보의 감각을 비트는 이야기는 「종의 기원」(2005)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종의 기원」은 사이보그와 인간의 경계를 무너

25 김보영,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 『진화신화』, 행복한책읽기, 2010, 73쪽.

26 위의 책, 77쪽.

뜨린다. 「다섯 번째 감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기계 등의 이분법은 역전된다. 청각이 초능력이 되는 것처럼, 기계는 생명이 된다.

생명은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며, 칩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하네.<sup>27</sup>

기계를 생명의 축에 놓으면, 생명의 개념이 전유된다. 자유의지라는 근대적 인간관의 특성은 그대로지만, 전기에너지와 칩, 공장생산이 생물의 자리를 전유한다. 정상적인 생명은 기계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특성은 열등한 것이다. 인간과 닮은 네 자리수 로봇은 지능과 교양이 최하위 수준이라 평가받는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농담을 하고 돌려 말하고 과도한 생략법을 쓴”(274쪽)다는 이유로 배척당한다. ‘인간적’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에서 표정이 쉽게 드러나는 로봇은 공적인 자리에 적합하지 않고, 연구직이나 행정직 등 사회적인 일을 하기에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며 배제된다. 소설의 주인공 케이는 이러한 소수자 로봇이다.

케이 히스티온은 생명의 기원을 질문하는 자다. 기계가 세계의 주체이자 생명의 지위를 차지한 세계에서, 창조론적 기원을 상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로 여겨진다. 재료나 칩이 없이 생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라는 말 뒤에는 ‘재료학’이 붙고, 생물학과에서 연구하는 것은 무기나 기계이다. 생명의 개념이 완전히 역전된 세계인 것이다. 케이는 신이 생명을 주었다는 창조론을 믿는 어리석은 열등생으로 여겨지지만, 세실과 같은 유기생물학을 연구하는 로봇들에게는 선구자 대접을 받는다. 김보영은 이러한 세계의 역전에 대해 질문하면서,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신성을 질문한다. 케이가 시작한 유기생물학은 산소와 물이 생명의 주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싹을 틔우는 데 성공한다. 유기생물학 연구실의 로봇들은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기와 물을 참아낸다. 몸의 표면에 녹이 슬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생명이라는 희열에 홀리듯 빠져든다. 그리고 이 희열의 정점에서 인간이 태어난다.

---

27 김보영, 「종의 기원」, 『멀리 가는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10, 247쪽.

모터음도 엔진 돌아가는 소리도 없었고, 기운 자국 하나 없었다. 케이는 한순간에 깨달았다. 모든 로봇은 모조품이며 불완전품이며, 이 완벽한 생물을 흉내 낸 그림자일 뿐이었다. 케이의 눈앞에 있는 것은 완전체였고 하나의 이데아였으며, 모든 예술가들이 평생을 바쳐 추구하는 ‘성스러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믿었던 ‘신성’ 그 자체였다.<sup>28</sup>

케이가 연구소를 떠난 후, 연구실은 ‘로봇을 닮은 유기생물’, 인간을 만들어낸다. 신성한 아우라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인간은 로봇의 손에서 탄생한다. 즉 인간의 역사 전에 로봇의 역사가 있었던 셈이다. 이는 신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조론을 빌려와서 창조의 시간을 탈신성화하는 이 소설은 생명의 창조는 과학기술임을, 과학이 신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소를 떠난 지 30년 만에 방문한 케이는 인간에 홀려 있는 기계들을 보며 신이 된 인간이 자신의 취약함을 위협할 로봇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있는 로봇들을 보며, 신이 된 인간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신성과 성스러움, 이데아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종을 절멸시킬 것이라고 판단한 케이는 인간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케이를 이해하던 유일한 동료 세실의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케이는 인간을 죽인다. 여기서 로봇이 인간의 알레고리로 등장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살해는 인간 종이 자신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상기시킨다.

겨울 중 나는 허물을 벗었다. 가혹한 환경을 견디다 못한 몸뚱이가 결국 골격구조에서 내장기관의 위치까지 변화시키는 일종의 ‘정리’를 결정한 것이다. (...) 새로운 몸에는 뱀처럼 미끈거리는 비늘이 돌아났고, 도마뱀 같은 긴 꼬리가 돌아나 있었다. 나는 잃어버리고만 내 인간성 앞에서 조금 울었지만 곧 진정했다. 내 몸은 최소한 내 이성보다 현명하다. 그

---

28 김보영, 「종의 기원;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멀리 가는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10, 322쪽.

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흐늘거리는 인간의 껍질은 모두 먹어 치워 영양을 보충하였다.<sup>29</sup>

「진화신화」(2006)의 ‘나’는 숙부에게 권력을 빼앗긴 왕자다. 거세된 주체인 그는 인간에서 동물로 퇴화한다. 몸이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나’는 의도와 달리 백성들로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이 되자 도리어 숭배받는 것이다. 이러한 역진화의 상상력은 인간성과 비인간성을 나누는 근원을 질문한다. 뱀이 변신하고, 곰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화해서 동물이, 괴물이 된다는 원시 신화를 비틀어서 진화의 시간을 되감는 것이다. 이처럼 진화의 시간성을 질문하는 김보영 소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4 비인간의 인식론과 성차의 탈자연화

근대의 자유주의적 주체는 성별, 인종, 민족성을 포함한 신체적 차이가 ‘없는 셈치고’ 보편적 주체를 주장한다. 신체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상황을 인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차화된, 인종화된, 자연화된 타자에 대한 차별 역시 비가시화된다. 자연스레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휴머니즘 이후를 상상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러한 근대적 인간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sup>30</sup> 그런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페미니즘과 만난다. 특히 페미니스트 SF에서 포스트휴먼적 상상은 남성중심적 세계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어 다각도로 이어진다. 페미니즘과 SF의 조우를 본격적으로 논한 서승희는 윤이형, 김보영, 정소연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페미니스트 SF의 윤리적 가능성을 타진한다. 계급, 권력, 자본, 성차 등을 탈주하는 한국의 여성 SF가 소수자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보여준다는 것이다.<sup>31</sup> 김미현 역시 테크노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29 김보영, 「진화신화」, 『진화신화』, 행복한책읽기, 2010, 20쪽.

30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8-74쪽.

31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 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호, 2019, 130-153쪽.

가져와서 윤이형과 김초엽의 소설을 ‘페미니즘 안에서의 과학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와 무질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체험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논의들은 SF소설 속 포스트휴먼 형상이 현실의 타자성을 환기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근대소설이 주인공으로 삼았던 문제적 개인이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정상성을 ‘보편 주체’의 표상으로 삼았음을 전제로 한다.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인조인간으로 등장했던 로봇은 AI와 만나 보다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 아닌 것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노동할 수 있는 몸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된다. 김보영은 「얼마나 닮았는가」(2017)에서 이러한 인식의 객관성을 심문한다. 소설의 초점화자는 위기관리 AI 컴퓨터 훈이다. 항해사인 ‘나’(‘훈’)는 우주선 내의 불온한 공기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다. 인간이 되고 싶다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보급선이 주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선원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결과다. 하지만 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단결하지 못한다. 조종사 김지훈은 의체를 통해 인간이 된 훈에게 “신에 가까워진 기분이 드냐”며 시비를 걸고, 선장 이진서 역시 훈을 결박함으로써 통제하려고 한다. 이들은 시종일관 훈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훈이 계산했던 것처럼 선장과 협력하지는 않는다. 인공지능을 가진 훈의 계산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은 훈의 합리성이 계산하지 못한/않은 지점을 드러내면서 해결된다.

훈은 이 궁극적 불화의 원인이 젠더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다. 항해사인 강우민은 선장의 명령에 불복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심지어 강우민과 김지훈은 인간이 된 훈을 강간하려다 이진서에게 들켜 감봉 처분을 받는다. 문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훈에게 이진서는 말한다. “여자 말 안 듣는 사내놈들은 싸고 썩어.”<sup>33</sup> 이진서의 이 말에 훈은 자신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32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쪽.

33 김보영, 「얼마나 닮았는가」, 『아직 우리에게겐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출판, 2017, 246쪽.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몸을 갖게 되는 순간 젠더가 부여되고, 이는 혼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진서가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고, 선원들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친밀성도 적극성도 부족”(227쪽)한 것은 그가 함선의 남성들로부터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우주선 선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진서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다. 장애의 정의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성은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sup>34</sup> 즉 이 경우, 젠더는 장애로 작동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늘 2등 시민의 위치에 있다. 혼이 함선을 이끄는 데 부적격한 점이라고 보고했던 이진서의 행동은 여성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남자들로 가득한 선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진서는 통로 쪽에서 잠을 잘 만큼 늘 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진서가 여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혼은 이진서와 선원들 사이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소설은 AI인 혼의 입을 빌려 한국사회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나이에 따라 다른 언어를 쓰는 문화권”(189쪽)이라든지 “인간은 인간과 완벽히 같거나 아예 다르면 불편해하지 않지만 비슷하면 불편해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210쪽) 등과 같은 한국에 관한 정보들은 혼의 데이터 안에 남아서 혼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방대한 혼의 데이터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 나라 공무원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내게서 지워버렸”(251쪽)기 때문이다. 이는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늘의 한국사회의 목소리를 날 것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성차별이라는 필터 없이, 혼은 선내의 분위기를 해석할 수 없었다. 왜 남찬영과 이진서가 선내에서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지, 강우민과 김지훈이 인간이 된 자신을 공격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획일적인 근대성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객관성이 백인, 남성, 제국의 눈으로 쓰여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샌드라 하딩은 서구문화의 과학과 지식이 백인, 이성애자 남성의 인식방법과 관찰방식에 부당한 권위를 부여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제 “모든 계급, 인종, 문화에 속한 여성을 위한 과학과 기술이 필요

---

34 김 닐슨, 앞의 책, 124쪽.

하다”는 것이다.<sup>35</sup> 다나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 역시 마찬가지다. 해러웨이는 객관성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위치 및 ‘상황적’ 지식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성이 특별하고 특수한 체현에 관한 것이지 모든 제한과 책임의 초월을 약속하는 거짓 시력[시선, vision]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제한된 위치 및 상황적 지식”을 도출한다.<sup>36</sup> 이러한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의 주장은 근대의 객관성이 지배계급의 한정된 세계관을 절대적인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훈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편견 없는’ 사고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성차별은 없다’고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체가 서 있는 위치는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불러온다.

훈이 인간의 신체를 입은 것은 선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남자들은 그가 인간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신이 된 기분을 느끼냐며 훈을 위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편견 없는 자의 위치에 있는 훈은 인간과 타자의 종적 구분을 비판한다.

“인간과 벌레의 유전정보는 99% 일치해. 하지만 인간은 벌레에게 자아가 있다고 믿지 않지. 이 배의 선원들은 다 제각각으로 생겼지만 너는 네 선원들에게 자아가 있나 없나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 인간이 누구에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는 단순한 습관일 뿐이야. ‘인간이 아닌’ 인간은 역사상 얼마든지 있었어. 노예라든가, 식민지 주민이라든가, 다른 인종이라든가. 하지만 볼 수 있는 게 자신의 자아뿐이라면 그게 정말 자아인지도 증명할 도리는 없어.”<sup>37</sup>

김보영은 훈의 입을 통해 인간과 인간 아닌 자를 구분하는 관습에 대해 질문한다.

35 황희숙, 「페미니스트 과학론의 의의—하딩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8호, 한국여성철학회, 2012, 5-37쪽.

36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제21호, 한국여성철학회 2014, 67-94쪽.

37 김보영, 앞의 책, 209쪽.

‘똑같은 인간’이란 없고, 비인간은 언제나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되묻기 시작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동일한 존재들이라고 가정하는 신화는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성차별주의를 관통하는 지점이다. 정상성을 규범화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자신과 다른 자를 인간이 아니라고 명명하고,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의 신체를 가진 혼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마저 수행하지 못한다. 늘 불평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남성들이다.

이진서와 혼의 키스는 이성애중심적인 규범적 세계에 균열을 내는 장면으로 삽입된다. 혼은 “그제야 처음으로 내 성별이 궁금해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육체는 빌린 것이고 이성과 사고만이 혼의 것인 상황에서, 키스는 육체가 느끼는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별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않는/못하는 것은 혼이 세계를 인지하는 데 중요한 차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혼은 성별을 기준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집단을 설명하는 데 대해 ‘데이터 오염’이라고 설명한다.

페미니스트 입장론을 대변하는 듯한 이 소설에서 인상적인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비인간인 혼이라는 점이다. 인간이길 포기한 혼은 착륙선을 보급상자 껍질로 삼아 타이탄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다. 의체는 “죽은 듯이” 이진서의 품에 안겨 있다. 혼은 “보급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으로 충만하다. 백업본으로 데이터만 정리된다면, ‘돌아온다’는 혼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위험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진서마저도 포기한 임무를 혼은 끝까지 고집한다. 그곳에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구조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혼은 가장 인간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성차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점은 김보영의 소설 『천국보다 성스러운』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지원으로 전시공간에서 열린 전시 ‘천국보다 성스러운’을 위해 기획된 이 소설은 신앙과 페미니즘, 성소수자를 함께 다루는 기획의 일부였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습니다. 그 신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평범한 한국 여성 영희를 중심으로 한 바깥 액자와 영희가 상상한 신의 이야기를 다룬 안쪽 액자로 이어진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일하

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희는, 자신이 먹은 그릇의 설거지조차 하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그런 영희의 세계에 신이 나타난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신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남자는 우수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말을 남긴다. 이에 남자들은 자신의 ‘고추’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절대자가 차별주의자라면, 우리는 그 절대성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김보영의 답인 이 소설은 성별을 탈신화화한다.

밤이면 남자들은 제 물건을 사랑스레 쓰다듬으며 애지중지 속삭였다.  
내 분신이며, 생명이며, 내 존엄의 원천이며. 네 빛깔과 크기는 내 자부심이며 긍지라. 아침마다 힘 있게 별떡별떡 서는 네 모습은 내 자랑거리이니.<sup>38</sup>

신이 던진 한 마디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성기는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된다. 즉 성별이 나뉘고, 성별이 권력이 되는 방식은 필연적이거나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한 효과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급사한 후 200년 뒤에 깨어난 남자가 등장한다. ‘창조주’로 떠받들어진 그는 후손들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여자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후손들은 당황하며 ‘여자’가 무엇인지 묻는다. 성별이 사라진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불가능한 것이자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없다며 화를 내는 그는 최고회의장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최고회의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남자는 다 뒤흔나?”<sup>39</sup>라며 남자가 없다는 데 경악한다. 이에 Cal, CPU 등의 이름을 가진 비인간들은 어렵사리 깨어난 신이 뇌를 손상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다시 잠들게 한다. 근대 시민의 모델이 남성으로 성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스트휴먼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보영은 액자 바깥의 영희 이야기와 신들의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다, 세번째 이야기에 가서 액자 안팎을 결합시킨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이

---

38 김보영, 『천국보다 성스러운』, 알마, 2019, 16쪽.

39 위의 책, 42-43쪽.

다. “광채가 나고 얼굴이 희고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광화문 위에 나타났다. 영희의 아버지는 “역시, 신은 남자로구나”라며 공감한다. 그뿐 아니라 노인, 백인, 이성애자, 비장애인 등 ‘정상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들은 신과 아주 작은 공통점이라도 찾으려고 한다. 김보영은 여기에 노인 남성 신 외의 다른 신들을 등장시킨다. 해방촌의 쪽방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여섯 살짜리 동생을 돌보며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여자 아이, 청소부 일을 하는 중년 여성,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희, 성별이 분간되지 않는 청년 등이 자신이 신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광화문에 나타난 신 역시 이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남성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다른 신들의 말에 알파는 “인류가 멸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남자가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남성성의 폐해를 유쾌하게 제시하는 이 소설은 성차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다. 「얼마나 닮았는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성과 유사성에 근거한 생각을 고집한 결과 나타난 것이 성차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소설은 자신의 신성을 깨달은 영희가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달은 여성, 아동, 중성, 소수자가 집을 나서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이는 근대소설의 출발 지점과 만나 세계의 끝을 이야기한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서사는 끝났고, 다른 이야기가 출발할 지점이라고 말이다.

## 5 ‘일할 수 없는 몸’의 경계를 넘어가기

2021년 3월 3일 변희수 하사는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 기일을 앞두고 사망했다. 트랜지션을 거친 그녀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으며 더 이상 군인으로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9년 법원은 그녀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지만, 육군본부는 그녀를 ‘장애’로 명명하였다. 여기서도 장애는 일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신체적으로 그 무언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직업으로 삼고자 했던 군대에 의해 ‘장애를 가진 몸’으로 호명되었다.

미국으로의 이주와 이민이 한창이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미국 이민국은 매일 소수의 관료들이 2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한

눈에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할 능력이 없어서 미국 사회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문지기 역할을 맡았다. 그들이 지적하는 이상상태에는 “이상한 얼굴 표정”, “기괴한 옷차림”, “수다스러움, 재담, 익살맞음”과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 매너리즘 그리고 기행”과 같이 동성애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던 것들도 포함되었다. 인터섹스였던 아르메니안계 터키인은 남성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추방당했다.<sup>40</sup>

성기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다’고 분류되었다.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몸’이 되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도 실패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동권과 시민권 모두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은 존재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이기도 하다. 장애, 성별, 국적, 인종, 섹슈얼리티 등 몸의 차이는 분절의 지점을 만들어왔다. 김보영 소설은 이 공고해 보이는 경계를 전유함으로써 경계 넘기를 제안한다. 일할 수 없는 자, 비인간으로 일컬어져 왔던 존재들을 가시화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흔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되는 SF에서 김보영은 미래를 과거로 치환한다. 「다섯 번째 감각」에서 과거에는 모두 들을 수 있었다는 진술은 말을 보는 사회가 미래의 일임을 암시한다. 이 선형적 진보의 감각을 되감는 이야기들은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기계 등의 이분법을 역전시킨다. 청각이 초능력이 되는 것처럼, 기계는 생명이 된다. 「얼마나 닮았는가」에서는 AI를 등장시켜 인식의 토대를 질문한다. 결국 젠더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결정되는 우주선에서는 AI가 의체를 통해 인간이 될 수는 있어도, 여자가 선장이 될 수는 없다. 이는 포스트휴먼이라는 “몸을 가진 확장된 관계적 자아”<sup>41</sup> 혹은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sup>42</sup>가 가진 횡단성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 혹은 확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사유하게 한다. 김보

40 김 닐슨, 앞의 책, 197-209쪽.

41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119쪽.

42 캐서린 헤일스, 앞의 책, 25쪽.

영의 소설은 우생학, 로봇, AI 등 종의 진화를 뒤집어서 장애, 질병, 그리고 퀴어적 세계로 확장시킨다. 정상과 비정상, 남성과 여성, 인간과 기계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계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전치시켜 그 비정상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보영의 소설은 세계의 전복, 혹은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 그야말로 페미니스트 SF라 부를 만하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김보영, 『멀리 가는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10.  
\_\_\_\_\_, 『진화신화』, 행복한책읽기, 2010.  
\_\_\_\_\_, 『천국보다 성스러운』, 알마, 2019.  
\_\_\_\_\_, 『얼마나 닮았는가』, 아작, 2020.  
김보영 외, 『아직 우리에게겐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출판, 2017.

### 단행본

-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그린비, 2020, 59-77쪽.  
성과재생산포럼, 『배틀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215-242쪽.  
장애여성공감, 『시설사회』, 와온, 2020, 221-227쪽.  
로즈메리 갈랜드 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84-91쪽.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8-74쪽.  
셀리 트레마인, 박정수 역, 『푸코와 장애의 통치』, 그린비, 2020, 21-37쪽.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나』, 열린책들, 2013, 25쪽.  
김 닐슨, 김승섭 역, 『장애의 역사』, 동아시아, 2020, 114-157쪽.  
헤르만 R. 판 윈스테런, 장진범 역, 『시민권의 이론』, 그린비, 2020, 187-199쪽.

### 논문

강은교, 김은주, 「한국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쪽.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쪽.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151-174쪽.

——,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비평문학』 제6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0-133쪽.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05-139쪽.

우미영, 「한국 현대소설의 ‘과학’과 철학적, 소설적 질문」, 『외국문학연구』 제5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21-142쪽.

이양숙, 「한국소설의 비인간 전환과 탈인간중심주의」, 『한국문학과 예술』 제34호,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227-259쪽.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 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호, 2019, 130-153쪽.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 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417-449쪽.

## Abstract

Feminist SF's Imagination for 'Disabled Body'

—On Kim Bo-young's novels

Heo Yoon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expected to free humans from labor. However, labor and its income were the main channels of citizenship in modern society, and workers with bodies that could work were divided into those who could exercise their citizenship, and disabled-queer-women, named 'unworkable bodies', were not eligible for citizenship. The

expectation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improve non-disabled centralism has proved impossible, as seen in the discussion of transhumanism. This is because the judgment on disability consists of social things, not whether they can actually work.

SF writer Kim Bo-young's novel reproduces a society that uses competitiveism as a norm, based on this non-disabled centralism. He dismantles the dichotomous order of disability-non-disabled, female-male, queer-rationalists, and twists the linear time view of progress made by Korean society. The imagination of this reverse evolution parodies the governance that defines beings excluded as 'unworkable bodies'. If there is posthuman power beyond modernity, posthumanism reproduced by Kim Bo-young is not a transhuman but a non-forehuman imagination.

Key words: disability, ablism, posthumanism, Kim Bo-young, SF novels

본 논문은 2021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